

고은 불교대사 소설 '수미산' 3년 연재 마치며

# “우리는 수미산의 자식들”

## 작가의 말



고은 시인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나는 수미산 세계를 반드시 소설의 세계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설은 수미산이고 대중은 연화장세계라고 구별하지 않는다. 《화엄경》 ‘화장세계’의 바탕이 바로 수미산이기 때문이다. 소설이 대중의 바탕이고 대중의 씨앗이 소설이기 때문이다. 아니 소설과 대중은 한동안 사람의 눈을 속여서 대상을 두 개로 보이게 할 때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소설과 대중의 역사를 넘어서 가능하다. 나는 ‘수미산’을 쓰기 시작할 때의 포부가 있었다. 그 포부는 ‘수미산’을 쓰는 동안 내내 함께 한 것은 아니었다.

사바세계의 한 무인도를 개척한 아령의 수행자들이 만든 시절인연을 그린 나머지 그 저쪽에 수미산이 솟아난 것이다.

아마도 ‘수미산’은 소설이기보다 시일 것이다. 시의 서사(敘事)가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있는 행위로 유효한 것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소설이란 근본적으로 현실을 그리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재현된 세계에의 집중을 뜻한다.

그러기 때문에 수미산의 세계가 우주적 감각을 주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소설적 시각으로 대응한다면 황당한 비현실일 수도 있고 초현실의 해명치기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응유병이라고 비난하는 일도 능히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 혹은 비현실이 얼마나 현실한 리얼리티로서의 현실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소설문법은 이제 건너뛰어야 한다.

너무 많이 보이는 17개의 집착이 인간의 자아와 무아의 창조적 활동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 변변치 않은 ‘수미산’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식구들의 우애만으로 지난 3년은 복되었다. 김광삼사장 최정희국장을 비롯해서 편집국 벗들의 청정한 수고는 입연대 윤기석기자의 교정, 전산실의 젊은 보살들의 그것과 함께 내가 받은 크나큰 공덕이었다.

여기에 조향숙여사의 눈부신 삽화가 없었다면 어디 ‘수미산’이 용이나 쓸 수 있었단가. 어떤 뜻으로는 이 ‘수미산’ 연재는 ‘수미산’ 삽화의 연재였다.

이것을 마치면서 나는. 상상속의 수미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히말라야산맥 중앙을 내다보는 현실의 수미산 순례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미산’은 수미산의 소말이 주재였음을 글으로 밝혀준다. 감사하다.



‘수미산’ 149회를 마쳤다.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나도 흘러와서 여기에 이르렀다. 20대의 어느날 《유마경》을 처음 만났다. 거기에는 극소(極小)와 극대(極大)가 하나인 것에 놀라는 나 자신이 있었다.

사라붙어 모든 불보살에게는 불가사의란 이름의 해탈이 있다. 만일 보살이 해탈에 이르면 수미산처럼 높고 넓은 것을 겨자 속에 넣

“ 소설속의 수미산은 무너졌으나 수미산 모습은 원래대로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

어도 그것에 의하여 어떤 증감도 일어나지 않는다. 수미산의 모습은 원래대로 있고 사천왕이나 33천의 신들은 그 자신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다만 부처님의 인도에 따르는 사림만이 수미산이 겨자 속에 들어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을 불가사의의 해탈법문이라고 이름한다. 지금이라고 해서 어찌 내가 겨자

씨와 수미산을 대변에 하나의 이름으로 들어올릴 수 있었는가. 그러므로 내가 수미산이란 우주를 처음으로 꿈꾸던 젊은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시간도 그때 그대로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미산은 이미 그 안팎에 헤아릴 수 없는 겨자껍(芥子劫)의 시간을 담고 있으므로 모든 것은 그 시간의 자식인 것이다. 어찌 나라고 해서 그런 자식들

## 허가의 말

조향숙 화백



“선택은 선택한 사람에게 부딪힌 사건에 의해서 실현된다.” 소설 ‘수미산’에는 이와같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 말이 많다. 조선후기 방랑승 인담이 예성강 전포루에서 만난 실

성한 남자 우녀를 2백년에 전경으로부터 사는 데서 시작되는 수미산은 마치 정엄한 만다라처럼 우리를 감동시킨다. 삽화를 그려오면서 개개인의 성격묘사보다는 좀더 수미산이라는 구도소설의 총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자 노력했

## 수미산은 구도자의 피안 22명 구도의 길 동행 ‘환희’

다. 끝난 지금 좀더 표현력이 있었으면 더 잘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화 남작 불어 합두 무전 파연 수원 수월... 등 22명의 수행자들이 저마다의

에 힘써이곤 할 때마다 나도 그럴처럼 똑같이 구도행렬에 동참했던 것이다. “본래 쉰한 것도 없어요. 공연히 색이 다 공이다 하는 말을 지어내어 우리들을

더 무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요.” 도반이자 스승 인담에게 맞서 영감에 찬 지혜를 번득이며 간화(看話)와 묵조(默照)에 구애받지 않는 공부로 무욕도의 도반을 이어가려는 우녀에게 그동안 너무나 매료되었다.

운회 자체를 일상적인 정진외 도량으로 삼고 그 운회의 발전에 의해서 도달하는 수미산이야말로 구도자의 궁극일 터 그 궁극까지 도달하는 방편으로 우녀는 무욕도의 생활을 영위했던 것이니 우리도 이 사바세계에서 저 피안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했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아재 모 자사바하.

## 소설 수미산을 읽고...

김희균 (前 대중불교 편집장)



수미산은 불교의 우주관을 이루는 거대한 산이다. 그 불교의 우주세계 수미산을 어떤 사람들은 ‘상상의 세계’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수미산이 진정 상상의 세계라면 경전의 그 공대무변하고 청정하기 이룰데 없는 남남의 묘사는 과연 누구의 변뇌란 말인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않으려는 탓이다.

우리시대의 거목이며 한국문학의 큰 산맥 고은 선생은 수미산의 광대한 세계를 바로 우리들이 숨쉬는 이 땅에 설정하고, 우리의 덧뜨워진 의식이 허물을 벗어가는 모습을 낱말로 보여주었다.

그동안 고은 선생의 수많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선생께서 이미 수미산 탐구를 끝낸지 오래일 것이라고 여겨왔었다. 수미산에서 도무지 탐구자의 조심스러움이나 망설임 없이 통쾌하게 내달리는 글을 대하면서 그렇게 이해했다. 작가는 이 땅의 수많은 ‘존재’들에게 수미산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수많은 상징과 은유를 동원하여 총원 무진 그림을 그려나갔다. 마치 쓰는 이가 ‘어떤 전생의 기억장치가 나와서 마구 퍼부어대는 서술의 폭포가 되기도’ 하였고, 수미산의 어떤 영매로 하여금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을 받아쓰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많은 등장인물을 인도해 가며 그들이 머무는 세상들을 보여주는 모습은 흡사 끝없는 바다속을 헤엄치는 고기떼를 앞장서 인도하여 어떤 목적지로 안내하는 것처럼

## 혼자서 갈수 없는 긴 여정 장엄한 적멸의 대단원 ‘감동’

보았다. 뜻 존재들을 그 무욕의 수미산으로 안내하려는 보살의 서원이 실현되는 현상이었다. 그렇게 공취로운 우주 법계를 넘나들며 의식의 높고 낮음을 펼쳐보았으니, ‘감동’ 쓰는 이의 결지를 짐작했거나, 광범한 불자들에게엔 결코 이해가 쉽지 않을 것 처럼도 보였다.

수미산을 향하는 시발점은 누구나의 가슴속에 있다. 수미산에 올라 정엄한 법계의 한 구상원이 되는 것도 의식의 발정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결코 혼자서만 갈 수 없는 그 길고 긴 여정. 소설 수미산은 그 길고도 아름다운 제왕의 여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많고 다양하다. 이것이 모두 함께 가려는 대중이고 보살의 정심일 것이다.

소설 ‘수미산’이 우리에게 더없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소설의 출발점인 무욕도는 반공 스님이 비로소 달을 ‘반포’던 서산방 간월도(看月島)이다. 지금도 우리의 정신적 고향으로 여겨지는 간월암이 그곳에 있다.

고은 선생은 바로 지금 이시대에, 한 때문지 않은 우리들 정신적 고향에 수미산을 안치하고, 바로 나와 우리들의 도반, 우리들의 스승이 변화무상한 내면의 갈구를 헤쳐나와 그 거룩한 천년의 땅 수미산에 안착되도록 발돋움시킨 것이었다. 이 혼돈의 시대, 더이상 가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가슴 벅찬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환희롭게 보여주었고 했다.

불이와 합두처럼 때로는 업질(業質)에 따라 자욕도에 혹은 아귀도에 떨어지는 ‘존재’의 궁극은 수미산에 도달하는 것임을 수미산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궁극이란 무엇인가. 그 궁극은 도달해보지 않은 자가 지레 ‘상상의 세계일 것’이라며 포기하는 지점이 아니라 온전히 확득하고 나서 온전히 놓아버리는 지점임을 밝히고 있다. 해서 소설 수미산의 마지막은 수미산 자체가 장엄하게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다 무너지고 다 놓아버린 적멸의 상태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아호! 무어라고도 더이상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할 것도 없는, 표현할 필요도 없는, 모든 것이 정지되어버린, 그저 ‘아호!’ 뿐이다.

문화사적 가치와 미술사적 가치가 하나로!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한국전통미술의 백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이진형 선생이 재현하여 문화재 가치의 작품으로 소장 보급합니다.

· 재질 : 청동 100% · 종류 : 브론즈코팅형, 굴동동형, 개금형  
· 높이 : 大(40.5cm), 小(26.5cm)-2종류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 737-8881

관 음 손 720-1147-E	진 영 사 734-3116	광 명 사 732-4792
삼 보 원 732-9904	성 불 사 735-3545	죽 아 원 739-0957
삼 복 사 733-0903-4	신양불교사 735-6719	불교서적사 732-8086-7
견지불교사 739-3032	종합불교사 733-6655	이화불교사 720-1700
불 사 원 720-5678		

한국전통미술의 백미를 현대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